아시아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비교 연구

-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복식을 중심으로 -

서 봉 하

용인송담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 부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 of Asian Traditional Costumes

- Emphasis on Buddhist, Hindu and Islamic Costumes -

Bong-Ha Se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투고일: 2014. 4. 28, 심사(수정)일: 2014. 5. 26, 게재확정일: 2014. 7. 27)

ABSTRACT

A variety of traditional costumes have been developed in Asia due to different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they are still worn by people in many areas. Traditional costumes in Asia have been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ideologies, as well as technology and social structure. Three Asian religions(Buddhism, Hinduism and Islam), which have undeniably strong influence on traditional Asian cultures, have great effects on the styles of traditional costume in each region of A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s of traditional Asian costumes. To do this, the author used images of traditional costumes, which were taken in person by the author, in each region of Asia as reference. Unlike the traditional costumes in the West, which expose the body shape, traditional Asian costumes have non-structural features in construction, form and wearing rules. They are also decorated with religious symbols and other ornaments, which is different from functional and non-decorative modern clothes. Each traditional Asian costume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e costume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shows the beauty of concealment that features trans-spatiality and abundant silhouette. On the other hand, the Hindu costume shows the beauty of symbolization represented by very colorful and complex ornaments, while costume in the Islam regions shows the beauty of restraint with clothes that wrap up the body in accordance with its strict religious discipline. Asian religions also represent philosophy, culture as well as an ethnic group. They have influenced entire Asian cultures including the arts, aesthetics and social structure and decided the style of costumes.

Key words: Asian costume(아시아 복식), Asian religion(아시아의 종교), folk costume(민속 복식), traditional costume(전통 복식)

I. 서론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는 아시아의 3대 종교로서, 통계상으로는 아시아 전체 종교 인구의 약 70%가 이들 세 종교의 신도들이다. 그러나 불교와 함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습합해 온 유교, 도교, 신도 등의 동아시아의 여러 종교들 역시 불교 문화권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여도 소속 국가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아시아 인구의 90% 이상은 이들 세 개의 종교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 각 종교권의 전통 복식은 아시아의 넓은 자연 지리적 환경과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현대화 된 서구의 복식과 달리 복식에 전통적인 특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종교적 이념이 반영된 아시아 3대 종교권의 복식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아시아의 복식, 나아가서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 복식이란 특정 국가나 민족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복식을 말한다. 계승되어 온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현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계승되지 않고 문헌이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 복식은 전통 복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혼용되고 있는 용어로 민속 복식이 있는데, 민속 복식은 전통 복식과 마찬가지로 역사성과 현재성을 모두 띠고 있으나, 귀족의 복식이 아닌 서민의 복식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급이 소멸된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전통 복식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복식과 민속 복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종교 복식이란 종교적인 믿음 체계가 특정의 존재 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상징화된 복식 전체를 가리키는데, 좁은 의미로는 주로 성직자의 복식을 가리킨다. 종교 복식 또한 넓은 의미의 전통 복식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복식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아시아 3대 종교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전통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오

랜 역사와 큰 규모, 잘 발달된 체계를 갖춘 종교인 세계 4대 고등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아시아를 근간으로 발달되어 있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아시아의 3대 종교이다. 불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힌두교는 남아시아의 인도와 네팔, 이슬람교는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국가 등의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러나 각각의 종교권 복식은 획일적이지 않고 국가나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복식이 일상복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전통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근본주의 또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와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본주의 또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복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봄을 밝힌다.

본 논문에 직접 인용된 참고 도판은 모두 저자가 아시아 각 지역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중에서 일부를 골라 활용하였다. 연구 목표는 첫째, 아시아의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고찰과 종교가 복식 양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찰, 둘째, 각 종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권별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 셋째, 아시아 3대 종교권별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넷째, 각 종교권별 전통 복식의 미적 가치가 지니는 공유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 등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각 종교권 복식의 특성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각 종교권 복식의 전형적인 형식들을 비교 연구한다는 차원과, 전통 복식의 형식이 각 종교의 종교적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종교와 복식

1. 아시아의 종교 문화

종교는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화 현상의 하나로써,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관한 믿음이며, 각 종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신념과 의례로 표현된다.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물론,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보편성과 함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¹⁾ 김해연은²⁾ “종교 문화는 한 나라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며, 종교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종교란 인종, 민족,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넓은 지역에서 공유하는 종교들로 창시자가 분명하고 성전(聖典)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가 이에 해당하며,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신도를 가진 힌두교를 포함하여 세계 4대 종교라 흔히 칭한다.³⁾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2014년판 온라인 정보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의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이 33.01%로 가장 많으며, 이슬람교 22.48%, 힌두교 13.65%, 불교는 6.7%이다. 이들 네 종교의 총 신도 수는 전 세계 인구의 75.84%, 전 세계 종교 인구의 85.73%를 차지한다. 이 종교들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신도와 발달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치·사회·문화·예술 등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4대 종교는 모두 아시아에서 발생하였는데,

건조한 서남아시아에서 생겨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목적적이고 투쟁적이며 세계 변화 지향적이다. 인도에서 생겨난 힌두교와 불교는 사색적이고 묵종적이며, 도교와 유교 등의 동아시아 종교들은 자연과 우주 안에서 조화에 관심을 가진다.⁵⁾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넓어 다양한 자연 환경과 기후 조건이 공존하고 각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각 민족마다 각기 다른 토속신앙과 종교가 존재하여 왔다. 특히 체계가 잘 발달되고 큰 규모를 가진 세계 4대 종교 중 기독교를 제외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이들 종교는 오늘날까지도 아시아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시아의 종교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표 1>⁶⁾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무슬림의 약 69%, 힌두교도의 99%, 불교도의 98% 이상이 아시아에 분포한다. 또한 유교, 도교, 중국 민속종교 등은 동아시아에서 불교와 습합되어 공존하여 오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넓은 의미의 불교 문화권으로 본다면, 아시아에서 이슬람, 힌두, 불교 등 세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했거나, 특정 종교의 신도 수가 인구의 과반 이상인 아시아의 국가를 정리한 표인데, 국가에 따라서 여러 종교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불교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해

<표 1> 아시아의 종교 인구

	종교 인구 (명)	아시아 종교 인구의 비율	종교별 세계 인구 중 아시아 인구 비율
이슬람교	1,083,354,900	30.55%	69.75%
힌두교	935,753,000	26.39%	99.25%
불교	455,412,000	12.84%	98.44%
유교, 도교 및 중국 종교	467,607,000	13.19%	99.63%
기독교	350,822,000	9.89%	15.38%
민족종교	153,565,000	4.33%	56.93%
기타 종교	99,671,100	2.81%	
아시아 종교 인구	3,546,185,000	100.00%	
무신론자 및 무종교인	620,556,000		
아시아 총 인구	4,166,741,000		

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가 불교 신도 수를 앞질렀고, 무종교인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중국도 인구의 과반을 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중국은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 또는 유·불·도교의 삼교(三敎)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민족의 문화는 단시간에 바뀔 수 없는 것이며, 불교를 비롯한 삼교는 천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들 국가의 문화 속에 스며 있어서 구성원의 가치관, 사고방식, 규범, 예술, 의식주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결국 이것은 한국이나 중국의 기독교 신자나 무종교인의 경우에도 전통적 종교와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를 크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문화권으로 분류를 하므로 한국·중국·일본·몽골 등의 동아시아를 불교 문화권으로 분류한다.

힌두교는 불교와 함께 기원전 1500년경에 생긴 바라문교를 뿌리로 하는데,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또는 절충주의의 종교로 윤회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좌선이나 명상을 하는 철학적 종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힌두권과 불교권의 복식이 천을 몸에 두르고 감아 착장하는 권의(卷衣)⁷⁾형 복식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에 의한 복식 형식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고등 종교 중 가장 늦은 7세기경에 탄생한 이슬람교는 종교

적 이념이 복식에 표현되기보다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전통 복식에 이슬람의 종교적 엄숙함이 더해져 폐쇄적인 복식 문화를 만들어 왔다. 종교는 한 집단이나 사회, 민족, 국가의 생활 방식과 문화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한 사회나 민족의 문화와 전통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보편성과 함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종교가 복식의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상징적 우주 안에 산다. 언어와 예술 그리고 종교가 이 상징적 우주를 형성한다. 인간은 자신의 언어 구조와 예술적 이미지들, 신화적 상징들과 종교적 의식 안에서 살고 있다.⁸⁾ 인간은 상징을 통하여 소통하고 감정을 나타내며 환상에 빠지고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완전을 갈구하는 심미적 욕구는 종교적 욕구와 직결된다. 인간이 가장 완전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신의 경지'와 종교적 신앙에서 찾고 거기에서 궁극적 기준을 발견하고 만족하지만, 또한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신의 경지'와 신비와 영원을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종교적으로 표현한다.⁹⁾ 따라서 예

〈표 2〉 아시아 국가별 특정 종교 우세 현황

지역 종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불교	대만, 몽골, 일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티베트(중국)	부탄, 스리랑카	
힌두교				네팔, 인도	
이슬람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신장(중국),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몰디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 카타르, 쿠웨이트
기타	한국, 중국**	동티모르, 필리핀 (이상 가톨릭)			이스라엘 (유대교)

* 일본은 국민 대다수가 불교와 일본 전통의 신도를 함께 믿는 신불 습합 현상을 띤다.

**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권 또는 유교 문화권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통계상 50%를 넘는 종교가 없다. 한국은 종교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와 기독교 신자이지만 무종교인이 46.5%이다.

술은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다. 인간은 종교적 신념과 상징에 따라 신화와 노래와 춤을 표현하였고,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하였으며, 복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종교적인 상징들을 표현해 왔다.

종교 사상은 상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상징을 통해 행위를 유발한다.¹⁰⁾ 우리 주위의 모든 삶과 행위가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의미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가 착용하는 복식도 각각의 종교에 따라 강한 상징성을 갖는다. 종교적 상징은 소수의 성직자 집단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전통적인 복식에도 뿌리 깊게 침투하여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복식은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틸리히(P.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정수(精髓)이며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라고 하였다.¹¹⁾ 종교는 인간 존재의 한 차원으로써 인간 존재의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간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때에는 종교적 차원과 맞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

종교는 믿음(belief system), 경험(experience), 공동체(community), 의례(rituals)로 이루어져 있다. 믿음은 의례로 표현되며, 의례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믿음은 경험되는 것이고, 경험은 믿음을 형성

한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재확인되며, 공동체는 공통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의례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며, 공동체는 집단적 의례 행위의 통로가 된다. 경험은 공동체에 활기를 주며, 공동체는 집단 경험의 표출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이중 의례는 종교적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믿음이 종교의 인지적 측면이라면, 의례는 종교적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다.¹²⁾ 따라서 종교는 격식이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¹³⁾이다. 결국 목적보다는 방법이 문제이며, 격식에 따라 행하는 종교 의례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복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구원의 방편으로 의례에 참석하고 의식화된 행동을 하며 종교적 형식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사람들은 종교적 생활, 즉 초월적 삶을 통해 초월적 차원을 인간 생활의 한가운데로 끌어 들이려 한다. 초월적 삶에 의한 체계화된 노력으로 종교적인 양식은 예술을 낳았고, 건축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종교음악은 종교의식의 산물이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복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인간이 옷을 착용한

<그림 1> 종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과 의례의 가시적인 표출 양식

이래 수많은 종교가 성립하거나 분파하면서 종교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복식 행위도 다양하였다. 특히 교주(敎主)의 복식이나 신상(神像)에 나타난 복식 등은 모방을 통해 역사적으로 존속 발전하였다.¹⁴⁾ 어떠한 특정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 집단이나 종파에의 소속, 믿음과 참여의 깊이나 강함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¹⁵⁾ 세시풍속이나 의례, 민간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복식도 넓은 의미의 종교 복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복식은 다산, 풍요, 전쟁 등을 위해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주술적 제사 의식에 이용되어 왔다.¹⁶⁾ 제사 의식에서 종교로 그리고 세속적인 진지함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연극, 음악, 춤과 같은 행위 예술에서와 같이 복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복식은 그 기원부터 종교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다.¹⁷⁾

복식은 실용적이며 도구적인 속성과 표현적인 속성으로 그 기능을 정의 내릴 수 있다. 도구적 기능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복식의 사용을 의미한다. 즉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시간과 장소, 목적, 상황 등에 따라 복식을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¹⁸⁾ 표현적 기능이란 복식이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과 의사 전달 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에는 한 개인, 사회, 시대의 정신이나 기질, 성향이나 정서 가치 내지는 종교적 신념 등이 포함되며 특유한 미적 감각이 전달된다.¹⁹⁾ 특히 한 개인이나 민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 온 종교는 각 민족의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복식에 표현 되어 왔고, 특히 종교성을 띠 수 밖에 없는 각종 의례나 행사에 착용되는 복식들은 표현적 기능을 강하게 표출하여 왔다. 해밀턴(J. A. Hamilton)의 층상모델²⁰⁾ 이론에 따르면 복식 양식이란 이 문화 체계의 일부(cultural sub-system)로서 특정 문화의 특징을 명백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독특하나,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다. 해밀턴은 복식이란 서로 구별되는 문화 구성 요소, 즉 '기술(technology)',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이데올로기(ideology)'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여기서 기술이란 물질 문화를, 사회구조는 사회적 행동을, 이데올로기란 가치, 철학, 태도, 종교

적 신념 등을 일컫는다.²¹⁾ 아시아의 복식 양식 또한 기술이나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종교적 믿음이나, 철학, 규율 등에 의해 복식의 외적 형식이 결정되어 왔고, 내면적 감정을 표현해 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아시아 각국의 종교나 사상은 그들의 복식이 서구화가 되고, 복식 내·외의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복식이 변화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지역의 전통 복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아시아의 종교와 복식

아시아의 전통 복식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 되어 오는 과정에서 각 종교의 믿음 체계가 복식의 특정한 양식 즉, 색채, 구조, 장식, 문양, 착용 방법, 착용 부위 등으로 상징화 되었다. 신성의 모방, 종교에의 구속, 금기, 성별 등 종교의 믿음 체계들이 복식에 상징화하여 나타난다. 조형적 대상으로서의 복식은 인간의 정신과 정서에서 발생하며 문화의 한 핵심을 이룬다. 복식미의 형식은 형태·색채·재질 등의 조형 요소나 이를 구성·배열하는 조형 원리로서 파악되며, 이는 복식이라는 객체의 미적 특징을 언급한다. 복식미의 내용은 이 미적 대상의 미적 특징을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예술의지, 감정, 사고, 상상 등의 집합적인 정신세계이며 복식의 미적 특징에 내재된 미적 가치이다.²²⁾ 특히 각 종교권의 이념에 따른 고찰을 하는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전통 복식에 대한 형식적 특징과 내재된 미적 가치를 살펴보고 비교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시아의 전통 복식은 오랜 세월 동안 복식 내·외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여 왔지만, 형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종교적 상징이 존속되고 있으며, 특히 각 종교의 믿음 체계는 복식의 의복 유형, 실루엣, 구성, 장식, 색채, 피복 부위 및 착용 방법 등을 통해 상징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1.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권 복식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권은 그 특성상 불교, 도교,

유교 등 삼교(三敎)의 영향을 받았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삼교의 정신을 고루 받아 그 형식이 결정되어 왔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불교, 도교, 유교가 각기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왔으나, 이들 삼교의 사상은 유사점이 많고, 특정 종교가 쇠한 시기라 할지라도 그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국·중국·일본의 복식은 삼교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왔다. 동아시아의 여러 사상에서는 수많은 미적 사고를 만날 수가 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비롯한 도교 사상과, 인의예악(仁義禮樂)의 유교 사상, 제법불이(諸法不二)를 비롯한 불교의 여러 사상에서 형성된 개념들로 동양적 사고의 영역을 넓혔다. 동양 미학이 추구하는 예술철학은 이 삼교의 사상을 떠나서 이야기 할 수 없다.²³⁾ 이시다(石田一良)는 『불교미술론』에서 ‘종교 미술이란 그 작품을 낳은 특정 종교의 종교체험을 구성하는 신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작품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는 예술 정신에의 공감을 표출하는 미술’이라고 정의하였다.²⁴⁾ 종교 미술은 절대적 존재를 가시적 현상으로 표현하여 이를 예배나 기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가시적인 상징은 종교 미술은 물론 복식을 비롯한 생활 주변 곳곳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의 뿌리가 되어 온 삼교의 사상 역시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고루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은 외적 형식과 내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동아시아 불교권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정형으로 인체를 감싸는 전체형의 복식 형식을 들 수 있다. 조형예술의 시지각적 요소들 가운데 공간 규정성으로 파악되는 형태는 가장 본질적이고 두드러지는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전통 복식의 특징은 형태를 취하지 않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형식으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풍성한 실루엣이다. 이는 서구의 복식과는 다른 특징으로써, 이원상대(二元相對)의 미적 인식을 부정하여, 주객의 분별, 진위의 분별, 미추의 분별, 형식과 내용의 분별 등을 부정한 불교의 불이(不二)²⁵⁾와 공(工) 사상, 철저한 나[我]의 배제이며, 자연과의 융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도교의 자연론, 유교의 절제론 등의 사상과 관련이 깊다. 인체를 감싸는 무봉의(無縫衣) 가사(그림 2)와 무정형의 한복 치마(그림 3), 초공간성을 가지는 풍성한 바지, 학창의나 도포의 가변적인 풍성함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절제와 청렴과 정숙성 등의 규범이 복식에 표현되는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특히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공자와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은 동아시아권의 생활양식을 절제, 청렴, 검소하게 만들었고 정숙함을 강요하였다. 유교 뿐 아니라 감성의 극대화를 악과 고통으로 보는 불교의 수온(受蘊)과 행온(行蘊), 미학과 윤리의 분리를 거부한 상온(想蘊), 절제에 가치를 두었던 심법(心法), ‘비움은 곧 그득함’이라는 철학의 도교 무위자연 사상 등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도복(道服)이나 가사 등의 종교 복식 뿐 아니라, 고고함과 청렴함을 상징하였던 선비들의 학창의와 심의, 백의 문화와 흑백의 조화, 여성의 정숙성을 강조한 장옷과 쓰개 등에서 나타난다. <그림 4>는 중국 쓰촨성의 한 도교 사원에서 향을 피우는 신도의 모습으로 색과 장식이 절제된 도교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셋째로는 소색(素色)과 무채색(無彩色)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복식에서 두드러진 색채 현상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소색과 흰색, 회색, 검정색 등의 무채색이다. 백색을 귀하게 여기는 백의호상(白衣好尙)의 전통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 민족이 백의를 숭상하여 일상복이나 종교복으로 착용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청명십과 결백, 생명 등을 상징하였다. 이는 도교의 무위자연론과 유교의 금욕적 인생관, 감정이나 욕망의 표출을 악으로 보는 수온(受蘊)과 심법(心法)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무채색의 복식은 도포 등의 일상복과, 상복(喪服), 종교복, 예복 등에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심의나 학창의와 같은 흑백의 조화, 회색의 승복, 흑색의 단령과 도포 등에서 나타난다.

넷째, 동양 사상의 전부라고 할 만한 음양 사상과 음양론에 의해 확립된 오행 사상이 동양의 복식 형태나 색채 등에 미친 영향이다. 복식에서 의(衣)를 양(陽)으로 상(裳)을 음(陰)으로 보았으며, 특히 한

〈그림 2〉가사를 착용한 몽골의 승려,
몽골 울란바토르의 간단사
- 저자촬영, 2010. 07. 17

〈그림 3〉전통의례 재현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한
여인, 서울 경복궁
- 저자촬영, 2008. 05. 03

〈그림 4〉향을 피우는 도교 신도,
중국 쓰촨성의 도교 사원
- 저자촬영, 2007. 08. 09

〈그림 5〉전통 혼례식의 신랑 신부,
일본 교토의 야사카 신사
- 저자촬영, 2011. 11. 26

국의 심의(深衣)는 우주의 근본이 건곤(乾坤)에 있음을 상징한 것으로, 우주 구성의 원리를 내포한 것이다.²⁶⁾ 특히 오행 사상에 의한 오방색은 불교권 복식에 나타난 색채의 전부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오행 사상에 의한 오방색은 계급을 나타내는 복식이나 혼례복, 아이들의 색동저고리, 무속복, 광대복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방색과 오간색의 서열과 음양의 원리, 그리고 그 상징성과 주술적 의미 등이 표현된 것이다. <그림 3>은 오방색으로 꾸며진 한복의 모습이다.

다섯째, 동아시아 복식에 나타난 화려한 장식을 꼽을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복식에 나타나는 장식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장엄 장식의 문양, 주술적 의미의 길상문양, 계급을 상징하는 장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장엄에 특수한 종교적 의의와 심오한 상징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발달 하였는데²⁷⁾, 이는 사찰 장식, 종교 미술 등에 주로 나타나지만, 상류층을 위한 공예품과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양오행 사상에 영향을 받은 문양과 주술적인 문양, 계급 상징의 문양들까지 모두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림 5>는 일본의 혼례식으로 신부가 길상의 의미가 담긴 꽃문양의 혼례복을 착용하고 있다.

2. 힌두 문화권 복식

전 세계의 힌두교 신자 수는 약 10억 명에 달하지만 그 대부분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지에도 다소 분포하고 있으나, 인도의 민족종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힌두와 인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힌두교는 세계의 주요 종교 중 가장 오랜 약 4000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오랜 세월을 걸쳐서 힌두교도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가치관, 관습, 사회구조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 오고 있다. 복식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며, 특히 여성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그들 전통의 복식인 사리(sari) 또는 전통 스타일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절대자를 보편적이고 구분이 없는 존재, 즉 전적으로 무 규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므로

어떤 식으로도 형태화되어 직관 될 소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²⁸⁾ 힌두의 절대자는 어떤 식으로도 형태화되어 직관될 소재가 되지 못하나, 거꾸로 이러한 초 감각성을 벗어나 거칠게 감각성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²⁹⁾ 힌두 복식은 그 형성 과정에서 종교적 믿음 체계가 복식의 장식, 착용 방법이나 착용 부위, 색채 등으로 상징화하였다. 종교적 요소의 행위 표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속(俗)과의 차단, 성(聖)으로의 영입, 종교적 신분 및 권위의 과시, 신성(神聖)의 모방, 종교에의 구속 등이 복식에 나타나며, 장식으로써 성스러움을 상징한다.³⁰⁾ 인도의 종교 복식이나 종교의 이념은 일반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 물리적인 자연 환경적 요인은 종교 복식의 유형 결정에 큰 요인이 되었으며, 반대로 현대의 인도 복식은 힌두의 종교적 성(聖) 개념이 상징적으로 가시화된 신상(神像)의 복식 또는 사제의 복식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힌두권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힌두교의 우주론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융화되고 연결된 통일체이며, 실이 끊어져 있는 것은 산란과 분해요, 우주의 종말이라는 관념³¹⁾에 따라 한 장의 천으로 된 무봉의(無縫衣)에 의한 독특한 복식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B.C. 약 2,500년 전부터 원시적인 권의(卷衣)형 복식이 도티(dhoti)의 원형을 형성하였으며, 사리, 오드니(odhni)³²⁾, 두파타(dupatta)³³⁾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다.³⁴⁾ 힌두 복식은 종교화나 신상에서 볼 수 있는 신의 모습에서도 흔히 발견되며, 몸에 걸치거나 묶거나 늘어뜨린 것으로, 옷감을 재단한 뒤 봉제하여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서양복과 대조를 이룬다. 힌두의 무봉의로 <그림 6>은 사리를, <그림 7>과 <그림 8>은 도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 힌두권의 복식은 오랜 세월을 걸쳐 힌두 경전의 사상, 다양한 신, 무수히 많은 상징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장식이 나타난다. 이마의 붉은색 점이나 표시는 힌두교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색이나 모양, 재질 등에 따라 성별, 종파, 결혼 여부 등을 나타

〈그림 6〉 금박 사리를 착용하고 헤나를 한
혼례식 신부, 인도 구와하티
- 저자촬영, 2011. 04. 30

〈그림 7〉 신성한 의식으로써의 공연,
인도 마주리섬의 힌두 사원
- 저자촬영, 2011. 04. 22

〈그림 8〉 힌두 성직자인 브라만의 푸자,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 강가
- 저자촬영, 2005. 01. 22

〈그림 9〉 사원의 의식에 참여한 무희들,
인도네시아 발리의 힌두 사원
- 저자촬영, 2011. 07. 29

낸다. 힌두 여성의 복식에는 화장,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가락지뿐 아니라 문신, 코걸이, 발목 장식 등도 보편적이다. 대부분의 장식에는 종교적 상징이 담겨 있고 장소, 상황, 연령 그리고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계급이 낮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장신구는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일반화 된 풍습이다. <그림 6>은 결혼식의 신부로 금박이 박힌 빨간 사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마에 신두, 팔 전체에 헤나 장식, 팔찌와 반지 등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종교적 상징과 관련이 있다. <그림 9>는 상징적 장식으로 가득한 옷을 착용하고 있는 힌두 사원의 무희들 모습이다.

셋째, 힌두교에서는 흰색, 노란색과 빨간색을 가장 신성한 색으로 여긴다. 제사를 담당하는 최고 계급인 브라만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흰색의 도티를 입으며 힌두의 성자들은 진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복식을 착용한다.³⁵⁾ 붉은 색은 힌두교에서 생명과 창조를 상징하는 색으로 결혼한 여자들이 이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생산력을 높이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파란색과 검은 색은 불길한 색깔들로 간주되지만, 때때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착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의 인도 여성들은 여러 가지 색채의 전통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색에 관한 관례를 뒤집기도 하면서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힌두의 윤회 사상에 의하면 영혼은 여러 육신을 취해 가며 윤회하며, 그것에서 해방 될 때까지 우주를 돌아다닌다. 착하게 살면 힌두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으로 환생하고, 악하게 살면 최하 계급이나 별레로 환생한다고 믿는다.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카스트제도는 힌두교만의 독특한 계급 제도로 아직까지도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복식은 이러한 카스트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계급에 따라 브라만은 흰색, 크샤트리아는 빨간색, 바이샤는 노란색, 수드라는 짙은 파란색 옷을 입어야 한다.³⁶⁾ 또한 복식 스타일이나 장식, 착용 방법 등도 카스트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3. 이슬람 문화권 복식

이슬람교는 세계의 고등 종교 중 가장 늦은 서기

600년경에 탄생한 종교이다. 불교나 힌두교가 오랜 세월 동안 각 종교의 사상과 성성(聖性)이 복식에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에 비하여, 이슬람교의 경우 이슬람 탄생 이전부터 전해 오던 복식의 특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슬람 복식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전통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해석에 바탕을 둔 여러 종교적 제도와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강화되어 왔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과 차도르로 대표되는 전신을 감싸는 형태의 복식은 열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이슬람교에 흡수되어 현재는 이슬람교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³⁷⁾ 원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현대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복식 규정을 통한 억압된 복식 제도를 종교적 사유로 지속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충실하고, 복식에 있어서 이슬람의 전형적인 양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로서 여러 다양한 문명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권의 전통 복식과 이슬람교의 영향에 의한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환경에 기인한 풍성한 긴 특징을 들 수 있다. 서남아시아 지역은 주로 무덥고 건조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태양과 모래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얇고 긴 옷을 겹쳐 입었다. 몸에 감거나 두르거나 뒤덮은 헐렁한 의복과 풍성하게 부풀린 바지가 서남아시아 복식의 특징이다. 전신을 뒤덮는 형식의 복식으로는 카프탄(caftan), 튜닉(tunic), 판초(poncho), 숄(shawl) 등 다양하며, 풍성한 느낌의 바지는 하렘팬츠(harem pants)와 같이 발목 부분은 조이고 허리와 다리 부분은 헐렁한 형식이다.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풍성한 느낌의 복식들은 의복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0, 11, 12, 13>의 복식이 모두 전신을 덮는 길고 풍성한 형태이다.

둘째, 종교로 인한 폐쇄적인 복식 형식이 그 특징이다. 이슬람 문화권은 코란에 나오는 정숙성에 대한 규율을 지키고 있는데, 특히 여성 복식의 정숙성을

〈그림 10〉 차도르를 입은 여인,
이란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 저자촬영, 2010. 01. 14

〈그림 11〉 장신구를 고르는 여인들,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시장
- 저자촬영, 2011. 01. 16

〈그림 12〉 아랍지방 전통의 흰색 장옷을 입은
남자, 오만 니즈와
- 저자촬영, 2011. 01. 10

〈그림 13〉 키마르와 안면 가리개를 한 여인의
앞모습, 방글라데시 문시건즈
- 저자촬영, 2008. 01. 21

더욱 강조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 전신을 은폐하는 검은색 차도르와 히잡과 같은 독특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였다. 여성의 머리를 덮는 히잡은 이슬람 이전의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 등에서도 나타나는 서남아시아의 전통이며, 이와 유사한 형태가 그리스 시대나 비잔틴 시대, 조선시대 등 매우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성의 신체 뿐 아니라 얼굴까지도 가려야 하는 등, 이슬람이 서남아시아에서 여성의 복식 규정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슬림 여성의 복식은 신체를 덮는 부위나, 길이, 지역 등에 따라 머리를 덮는 히잡(hijab), 얼굴을 제외한 머리와 신체 전체를 감싸는 차도르(chador), 눈을 제외한 얼굴까지 모두 가리는 니캅(niqab), 그물망으로 눈까지 모두 감추는 부르카(burqa), 머리를 감싸는 판초형 복식 키마르(khimar), 장옷인 아바야(avaya)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복식들은 폐쇄적인 이슬람의 상징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시지각적으로 강한 폐쇄형의 특징을 띠고, 밋밋한 구성으로 인해 평면적으로 인지된다. <그림 13>은 키마르에 안면 가리개까지 한 여성의 앞모습이다.

셋째로는 이슬람 지역 복식의 절제된 색채이다. 이슬람 국가들 간에도 복식 문화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원리주의에 충실한 서남아시아의 대부분 여성들은 획일적으로 검정색 차도르나 부르카, 아바야 등의 복식을 착용한다. 무슬림 여성의 검정색 복식은 그 복식들의 구조적인 폐쇄성과 함께 엄격함과 강한 은폐성을 나타낸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검정색을 비롯하여 흰색, 회색, 청색 등을 주로 착용하며 화려한 색상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슬람 지역이 오래전 화려하고 찬란했던 복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슬람 이후의 복식이 꾸미지 않는 형태로 발전했던 것처럼, 복식의 색상도 검정색, 갈색, 짙은 파랑색 등의 어두운 계통과 흰색, 회색 등으로 단순화되었다.

넷째로 이슬람 여성 복식의 감춰진 장식성이다. 서남아시아의 여성 복식은 착용자의 출신, 지위, 개성 및 종파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장식이 발달하였고, 의상에 덧붙여진 애플리케 장식의 위치 및

모양을 달리함으로써 소속 지역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예복이나 축제복에는 많은 세부 장식이 사용되어 아라비아 전통 의상은 기교와 예술의 복합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었다.³⁸⁾ 오늘날 무슬림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장식이 극도로 억제된 복식을 착용하고 외출을 하지만, 검정 베일 속에는 화려한 색과 장신구로 치장한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의류 상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화려한 색상과 장식의 여성복들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모두 검정색 차도르나 부르카 안쪽에 착용하는 내의나 중의류이다. 또한 금 목걸이와 팔찌 등의 값비싼 장신구를 하거나, 의복으로 가려지지 않는 눈, 손, 발 등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한다.

IV. 아시아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1. 조형적 특성의 비교

아시아의 3대 종교, 즉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권의 전통 복식은 아시아의 넓은 자연 지리적 환경과 각기 다른 종교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각 종교권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보편성보다는 아시아의 다양한 환경과 종교적 이념의 차이에 기인한 각 종교 문화권 복식의 특수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각 종교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권은 불교, 유교, 도교 등 삼교의 영향을 고르게 받았다는 특이점이 있는데,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연에 조화되려는 사상으로 인하여 인체를 풍성하게 감싸서 형태를 취하지 않는 형식과, 물들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비롯한 무채색이 주를 이룬다. 또한 감성의 절제와 청렴함, 정숙성 등을 강조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장식과 색채가 억제되어 전체형과 폐쇄형의 윤곽선을 가지는 복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상류층의 복식이나 혼례복과 같은 의례복, 기생이나 무속인 등의 특수 직업복, 아동복 등의 경우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상

징과 길상 장식이 비교적 많이 사용 되었다.

힌두권의 복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지금까지도 힌두권 여성의 대부분이 전통 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복식에 힌두교의 사상과 다양한 상징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실이 끊어져 있는 것을 산란과 분해로 보는 힌두교의 우주론에 근거한 무봉의가 가장 특징적인데, 이는 사리나 도티와 같은 인체를 감싸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복식이다. 힌두 복식은 종파의 표시나 순결의 상징, 주술적 의미 등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이 사용되며, 성스러운 붉은색을 비롯한 다양한 원색들이 복식에 나타난다.

이슬람권의 복식은 종교적 사상이 직접 복식에 반영된 것이 아니며, 기존의 서남아시아 지역 전통 복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슬람을 상징하는 복식으로 고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정숙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복식에서 색채와 장식이 사라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도르나 부르카 등으로 전신을 감싸는 것은 물론 심지어 눈까지도 은폐하는 극도의 폐쇄적인 복식 형식을 띤다. 이러한 폐쇄적인 복식의 감춰진 내부는 화려한 색과 장식으로 꾸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은 아시아 3대

종교권의 전통 복식이 각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조형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각 종교권 복식의 조형적 차이점이 더 크다고 밝혔으나 계몽주의 사고에 기초한 서구의 현대적인 복식과는 대비되는, 아시아권 복식으로써의 보편적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복식의 조형적 보편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복식의 구성과 형태, 착장법 등에서의 비구조적인 특징이다. 특히 두르고, 감고, 뒤덮여 인체를 풍성하게 감싸는 권의(卷衣)형 복식이 각 종교권마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복식의 형식은 무정형으로 가변성이 높으며, 인체의 구조에 맞춰 재단하고 봉제하여 인체를 드러내는 서구의 복식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의 장식이다. 비록 이슬람권 복식의 화려한 문양과 장식이 이슬람 탄생 이후 일부에서는 복식의 내부로 감추어졌지만, 힌두권 복식의 다양하고 화려한 종교적 상징 장식과 불교권의 장엄과 길상 장식 등은 서구의 기능적이고 비 장식적인 복식 문화에 비하면 특징적인 것이다.

셋째, 흰색, 회색, 검정색과 소색과 같이 색으로 물들이지 않은 자연의 색 등 무채색 계열의 선호이다.

<표 3> 아시아 3대 종교권별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 비교

		불교권 복식	힌두권 복식	이슬람권 복식
복식에 영향을 미친 종교적 요인		- 불이, 오온, 심법, 장엄장식 - 도교의 무위자연과 창조론 - 유교의 절제론과 음양오행 - 무속신앙	- 힌두교의 우주관 - 여성에 대한 관념 - 힌두의 순결과 불결의 개념 - 윤회 사상과 카스트제도	- 전통 복식의 이슬람 복식화 - 코란에 의한 정숙성의 강조 - 이슬람의 여성에 대한 통제 - 이슬람 근본주의
구성적 특성		-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풍성한 실루엣 - 총체적 외관미의 중시와 비구조적인 자연미	- 무봉의로 풍성하게 인체를 감싸는 비구조적 복식 - 한 장의 천을 몸에 두르고 감고 걸쳐서 착용	- 전신을 풍성하게 감싸며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폐 - 여성의 머리 또는 얼굴까지 감싸는 히잡의 특성
주요색채		- 흰색(소색), 무채색 - 음양오행에 의한 오방색	-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흰색, 황색, 붉은색 - 매우 다양한 원색	- 지조와 엄격의 검정색과 성스러운 흰색 - 화려한 원색의 복식 내부
장식	반(反) 꾸밈	- 삼교의 여러 사상을 실천 - 상류층의 일상복이나 서민복에서 장식의 억제	<반(反)꾸밈의 특징이 약함>	
	꾸밈	- 음양오행의 조화미 - 길상 장식과 장엄 장식	- 종교적 상징의 표현 - 화려한 장신구, 화장, 문신 등	- 드러나는 장식을 제한하여 성스러움에 몰입 - 이슬람의 정숙성 강조 - 겉옷으로 감춰진 내부의 화려한 색채와 장식

이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미의 추구나 종교적 성스러움의 표현, 정숙성이나 엄숙함, 절제미 등을 표현한다.

넷째, 앞의 셋째 항목과 상반되는 것으로 복식의 화려한 색채 문화이다. 이슬람권 복식의 색채는 이슬람 이후에는 장식과 함께 극도로 억제되어 복식의 내부로 숨어 버렸지만, 불교권의 음양오행 사상에 따른 오방색의 원색과 인도의 화려한 복식 색채는 아시아권 전통 복식의 화려한 색채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복식은 정반대의 개념인 무채색과 원색 양극단의 특징을 뚜렷하게 띠고 있으며, 서구의 현대 복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간색, 예를 들면 베이지색, 하늘색, 브라운색 등과 같이 여러 색상이 혼합된 중간색 계열이나 중채도의 색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2. 미적 가치의 유사성과 특수성

아시아 전통 복식의 미적 가치에는 유사성과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먼저 유사성으로는 ‘감춤의 미’와 ‘상징의 미’가 있다. 각기 그 근원과 규율의 경중이 다르고 표현 방식과 조형적 특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만, 정숙성을 강조하는 공통된 분위기는 인체를 감싸는 복식 형식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러한 복식들에서는 ‘감춤의 미’가 표현되고 있다. 각 종교의 우주관이나 사상, 규범 등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던 이러한 복식 양식은 특히 여성들의 복식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복식과 인체를 유기적인 전체로 인식한 초 공간성으로써 두르고 감고 뒤덮어 인체를 풍성하게 감싸는 모호성의 형태를 나타낸다. 동아시아 각국의 전신을 덮는 풍성한 전통 복식이나, 머리와 전신을 덮는 인도의 사리나 두파타, 머리와 얼굴까지 감추는 이슬람의 차도르나 부르카 등은 비구조적인 형태의 복식으로 인체를 은폐하여 ‘감춤의 미’가 표현된다.

‘상징의 미’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시아 복식의 유사성으로써, 세계의 많은 전통 복식들이 장식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것처럼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의 전통 복식에도 다양한 종류의 상징 장식들이 있다. 대부분 종교적인 상징이나 신념, 주술적인 믿

음과 기원을 내포하고 있거나, 소속이나 신분, 역할, 종파 등의 구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문양, 신체 장식, 장신구, 색채 등을 통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복식 장식, 금·은과 화려한 색으로 장식되는 힌두 문화권의 복식, 이슬람의 주술적 상징의 장식이나 겉옷 안에 감춰진 화려하고 원색적인 내부 장식 등이 그 예이다.

각 종교권의 복식은 조형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적 가치에도 차이점이 있다. 불교권의 복식에서는 도교의 무위자연과 불교의 불이사상, 유교의 절제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식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탈 기교적 양식, 자연 그대로의 색채 등에서 비롯된 ‘자연의 미’와 감성의 절제와 비 장식성으로 인한 ‘비움의 미’가 특징적이다. ‘비움의 미’는 이슬람권의 복식이나 서구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절제’의 개념과는 다른 불교권의 미학적 특징으로써 ‘유’와 ‘무’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비움’을 바탕으로 한다.

힌두권의 복식에서는 힌두교의 초월과 합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한 장의 큰 천으로 된 무봉의에 의한 ‘자연의 미’가 특징적이고,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과 색채, 문양 등으로 인한 ‘상징의 미’가 다른 종교권 복식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다. 힌두교의 현재 지향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무수한 종교적 상징을 복식을 통해 드러내는 힌두권의 복식에서는 ‘비움의 미’나 ‘절제의 미’와 같은 미적 특징은 찾기 어렵다.

이슬람권의 전통 복식에서는 단조로운 실루엣과 억제된 장식,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 위주의 색채 등으로 인하여 ‘감춤의 미’와 ‘절제의 미’가 불교권이나 힌두권의 복식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자연의 미’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이슬람 지역의 물리적 환경 즉, 태양광과 고온 건조함, 바람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남아시아 지역의 얇고 풍성한 복식 양식이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의 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불교와 힌두교가 인본주의와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동방 종교라면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함께 유일신을 섬기는 신본주의 종교로 배타적이고 역사 지향적이

며 내세지향(來世志向)적인 종교이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나 자연환경 등의 영향으로 이슬람 복식은 '자연의 미'가 약하고 '기능의 미'가 더 두드러진다. 또한 힌두권 복식과 달리 불교권 복식과 이슬람권 복식은 모두 강한 폐쇄형을 띠는데, 불교권 복식이 여러 종교 철학에서 비롯된 '비움의 미'라고 한다면, 이슬람권 복식은 엄격함과 정숙함이 더욱 강조된 '절제의 미'라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전통 복식은 이와 같이 각기 유사성과 특수성을 보이고 있지만 서구의 현대 복식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의 근원 역시 서양과 동양의 종교, 사상, 철학 등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르튀르 랭보(A. Rimbaud)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모든 동양 철학과 전통에 깃든 공통점 한 가지는, 육체적 결정론으로부터의 존재 해방, 각종 욕구와 신체적 규율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이 점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인 바, 그 이유는 신체가 감각 현상계 즉 허망한 현실계에 속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물질에 효율적 생존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 부인되는 것이다.”³⁹⁾ 이러한 동양적 특징의 근본 바탕에는 여러 종교 사상들이 자리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시아의 여러 종교 사상과 이념, 규율, 이로 인한 사회 구조 등은 아시아인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 미의식 등을 형성하였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복식의 형식에 영향을 미쳐 왔다. 서구의 현대화된 복식과 달리 아시아에는 아직도 그러한 전통이 잔존하고 있으며, 종교적 상징들이 복식에 드러나 있다.

V. 결론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복식인 전통 복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형식이 결정되어 왔다. 아시아의 많은 지역은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구의 현대적인 복식을 착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복식의 착용을 고수하고 있다. 복식의 형식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연 환경이나 기술의 발달, 사회적 구조나 종교적 이념 등으로 매우 다양하

다. 힌두교 여성들은 신상의 모습과 닮은 옷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무슬림 여성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을 쓰고 검은 천으로 몸을 감추고 다닌다. 전통 복이 일상복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도 종교 복식이나 의례용으로 착용되는 전통 복식에는 종교적 사유들이 가득하다. 또한 전통 복식의 착용을 고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사회 구조 또한 종교에 영향을 크게 받아온 것이라고 볼 때 아시아에서 종교적 요인이 복식에 미친 영향은 크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는 아시아의 3대 종교로서, 이들 종교 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 인구는 전체 아시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각 종교권의 전통 복식은 각기 다른 자연환경과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3개 종교의 이념 차이가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의 차이를 가져옴을 논의하였다.

아시아의 전통 복식은 서구의 현대적인 복식과는 대비되는, 아시아권 복식으로써의 보편적 특성이 있다. 서구의 복식은 옷감을 인체 맞게 재단하고 봉제하여 인체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인체의 굴곡을 드러나게 하는 반면, 아시아의 전통 복식들은 구성과 형태, 착용법 등에서의 비구조적인 특징을 띤다. 이는 물질보다 정신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사상들에 의해 총체적 외관을 강조하여 인체를 감싸고 은폐하는 초공간적인 무정형의 복식이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적이고 비 장식적인 현대 복식에 비하여 아시아의 전통 복식은 종교적 상징과 각각의 다양한 장식들로 꾸며진다. 색채에 있어서도 현대 복식이 중간색, 예를 들어 베이지색이나 분홍색, 짙은 청색 등의 혼합된 중간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반하여, 아시아의 전통 복식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흰색, 검정색 등의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며, 색을 입는 경우에는 원색에 가까운 매우 화려한 색의 복식을 착용한다.

이러한 아시아의 복식들은 서로 유사성을 띠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특수성도 가지는데, 불교권 복식은 초공간성의 풍성한 실루엣과 그로 인한 '감춤의 미'가 가장 큰 특징이고, 힌두권 복식은 매우 화려하

고 복잡한 종교적 장식에 의한 '상징의 미'가 가장 두드러지며, 이슬람권 복식은 엄격한 규율에 의한 폐쇄적인 복식으로 '감춤의 미'와 '절제의 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아시아의 종교는 종교이자 철학, 문화이며 민족 그 자체로서, 예술과 미학은 물론 사회구조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고 복식의 양식을 결정해 왔다. 세계화의 추세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동질화 시켜 왔지만 동서양의 내면에 각기 자리 잡고 있는 이념적인 뿌리는 각자의 내면에 유유히 흐르고 있다. 무(無)에서 출발하여 모호함과 숨음의 사상이 내포된 동양의 미학은 동양의 복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형태를 형성해 왔던 반면, 기독교와 서구 철학을 기반으로 한 서구의 미학은 동양의 그것과 대비되어 유(有), 명확함, 드러냄 등으로 특징 질 수 있는데, 이러한 서구의 미학은 복식과 인체의 맞음새를 중요시 하여 구조적이고 명료한 형태를 형성해 왔다. 서양과는 다른 동아시아의 무(無)사상과 힌두의 초월과 합일의 세계, 이슬람교도들의 신념 등은 서구 문화의 침략과 확장에도 쉽게 소멸될 수 없는 것으로,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아시아의 전통이자 정체성이다.

참고문헌

- 1) 노길명 (1998), *문화인류학의 이해*, 서울: 일신사, p. 237.
- 2) 김혜연 (2003), *동서종교문화교류사*, 서울: 성지출판사, p. 297.
- 3) 山折哲雄 (2004), *세계의 종교*, 이계성 역, 서울: 서울문화사, p. 18.
- 4) 자료검색일 2014. 3. 21, <http://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1731588/Religion-Year-In-Review-2010>
- 5) Fallding, H. (1974), *The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McGraw-Hill, pp. 167-169.
- 6) 자료검색일 2014. 3. 21, 앞의 인터넷 사이트 global.britannica.com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함.
- 7) 권의(卷衣)는 재단과 재봉을 하지 않은 한 장의 천을 몸에 감거나 걸치거나 늘어뜨려 착용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이 특징이다. 드레이퍼리(drapery)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스·로마 시대의 의복, 불교 승려의 가사, 인도의 사리, 동아시아의 사롱이나 롱지 등이 모두 권의형 복식에 속한다.
- 8) Cassirer, E. (1970), *An Essay on Man*, New York: Bantam Books, p. 27.
- 9) 서광선 (1975), *종교와 인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49-50.
- 10) Smart, Ninian (2000),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pp. 55-57.
- 11) Tillich, P. (1948), *The Protestant Er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7.
- 12) 이원규 (2006), *인간과 종교*, 파주: 나남출판, pp. 30-33.
- 13) 서봉하 (2007a), 종교에 영향 받은 아시아 복식미와 아시아 특의 조형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8.
- 14) 권영실, 조우현 (1997), 인도 종교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4), pp. 678-679.
- 15) Barnard, M. (1996), *The Function of Fashion and Clothing, Fashion as Communication*, Oxford: Resources, p. 67.
- 16) Wilson, E.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 56.
- 17) 최수현 (2003), 복식에 표현된 숭고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87.
- 18) 김민자 (2013), *복식미학: 패션을 보는 시각과 패션에 대한 생각*, 서울: 교문사, p. 24.
- 19) *Ibid.*, p. 24.
- 20) Hamilton, J. A. (1988), Dress as a Culture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pp. 1-7.
- 21)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1: 복식미를 보는 시각*, 서울: 교문사, pp. 114-115.
- 22) 김민자 (2004), *op. cit.*, p. 23.
- 23) 윤재근 (1993), *동양의 미학*, 서울: 등지, p. 71.
- 24) 홍윤식 (1986), *韓國의 佛教美術*, 서울: 대원정사, p. 15.
- 25) 윤재근, *op. cit.*, pp. 72-73.
- 26) 임영자 (1990), *韓國 宗教服飾-佛教와 道教服飾을 中心으로*, 서울: 아세아문화사, p. 37.
- 27) 홍윤식, *op. cit.*, p. 21.
- 28)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996), *해겔 미학 II: 동양예술, 서양예술의 대립과 예술의 종말*, 두행숙 역, 서울: 나남출판, p. 71.
- 29) *Ibid.*, p. 72.
- 30) 서봉하 (2007b), 힌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인도 무봉의(無縫衣)의 조형미, *복식*, 57(10), pp. 129-141.
- 31) 이은봉 (1992), *종교와 상징*, 서울: 세계일보, p. 189.
- 32) 오드니(ordni)는 머리를 덮는 힌두 전통 베일이다. 일반적으로 헐렁한 바지와 꼭 끼는 상의를 착용한 후 오드니를 머리에 쓴다.
- 33) 두파타(dupatta)는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망토 형태의 복식으로, 바지와 상의를 착용한 후 걸친다. 한 장의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사리와는 다르다.
- 34) Dar, S. N. (1982), *Costumes of India and Pakistan: A Historical and Cultural Study*, Bombay: D. B. Taraporevala Sons & Co, p. 89.

- 35) 서봉하 (2007b), *op. cit.*, pp. 128-140.
- 36) Leslie, J. (1992), The Significance of Dress for the Orthodox Hindu Woman, R. Barnes & J. B. Eicher (eds.), *Dress and Gender Making and Meaning in Cultural Context*, Oxford: Berg Publishers.
- 37) Ross, H. C. (1985), *The Art of Arabian Costume: a Saudi Arabian Profile*, Fribourg, Switzerland: Arabesque, p. 37.
- 38) 황춘섭 (1995), *세계전통복식*, 서울: 수학사, pp. 83-84.
- 39) 이준오 (1990), *아르튀르 랭보의 詩. 영혼의 언어와 침묵 - 동양의 형이상학과 미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p. 239.